

#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경쟁부문 후보”

-미국 영화매체 할리우드리포트

해마다 '칸' 초청 받은 한국영화 작년 '버닝' 경쟁부문 수상 불발 올해 송강호 주연 '기생충' 유력 '전문' '악인전' 등도 칸 초청 기대

매년 5월은 이제 칸과 한국영화가 만나는, 땀 수 없는 시기로 통한다. 프랑스 남부도시 칸에서 5월 중순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영화 축제인 칸 국제영화제의 초청장을 받는 한국영화와 영화인이 해마다 탄생하고 있어서이다. 지난해만 해도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경쟁부문에, 황정민·이성민 주연의 '공작'은 심야 상영인 미드나잇스크리닝에 초청됐다.

올해 72회째인 칸 국제영화제는 5월 14일 개막에 앞서 18일 초청작을 공식 발표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한국영화는 봉준호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가 주연한 '기생충'이다. 물론 근거 없는 기대가 아니다. '기생충'의 칸 진출을 먼저 예측하는 곳은 미국 영화 전문지들이다.

미국 영화매체 할리우드리포트는 3월 6일 올해 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영화들을 꼽으면서 '기생충'을 포함했다. 또 다른 영화지 배리어티 역시 3월 19일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통해 역대 황금종려상 수상자인 쿠엔틴 타란티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등의 신작과 더불어 경쟁부문에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로 진출을 예측했다.

봉준호 감독은 2009년 '마더'(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를 통해 칸 국제영화제



현지시간으로 5월 14일 개막하는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초청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가족 구성원이 전부 '백수'인 한 가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와 인연을 맺은 뒤 2017년 넷플릭스가 제작한 '옥자'로 처음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당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의 작품을 영화제에서 초청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지만, 이런 시스템의 문제와 별개로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를 향한 칸의 기대와 신뢰는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다.

'기생충'을 필두로 올해 칸 국제영화제 초청을 기다리는 한국영화는 상당 수

에 이른다. 진출 자체로 작품성을 인정 받는 것과 다름없는 데다 상당한 마케팅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제 한 관계자는 "촬영을 마치고 상반기 개봉을 준비하는 영화들은 웬만하면 칸 진출 일정을 확인하고 출품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며 "현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마케팅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배우로는 처음 칸 국제영화제

우주연상(밀양)을 받고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전도연이 주연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도 그 중 하나다. 이에 더해 칸 심사위원대상 수상작인 '올드보이'를 통해 충격을 던진 최민식의 새 주연 영화 '천문'도 있다. 2016년 칸에서 처음 공개돼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부산행'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마동석의 주연영화인 '악인전'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김형준

정준영

## 김형준, 성폭행 혐의 피소 소속사 "명예훼손 맞고소"

정준영 '몰카 공유방' 23개로 늘어

그룹 SS501 출신 김형준(31)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빅뱅의 전 멤버 승리, 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출신 최중훈 등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연루된 성범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또 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3월 31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성 A씨가 2010년 5월 고양시 자신의 집에 찾아온 김형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월 25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김형준에 거부 의사를 두 차례나 밝혔지만 소용없었다. 갑작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수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3월 27일 고소인 조사를 통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연예인이 연루된 성범죄가 폭로되는 상황에 용기를 얻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형준은 A씨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형준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A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하에 이뤄졌고 강압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9년 전의 일이고, 김형준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A씨가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등 남미 투어 중인 김형준은 이날 초 구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조만간 구국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받겠다. (성폭행)사실이 아니라는 물증도 있다"면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의 일명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한 인원은 이미 알려진 승리와 최중훈 등을 포함해 총 16명이며, 이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대화방은 23개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명이 서로 여러 개의 단체대화방이나 1대1 대화방에서 동영상과 사진 등을 주고받았고 이들 가운데 정준영이 13건, 승리가 1건, 최중훈이 3건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준영 외에 승리와 최중훈도 입건된 상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중국판 '미생', 한한령 지우고 한류 부활?

올 상반기 절강위성TV서 방영

이성민과 임시완 주연의 드라마 '미생'의 중국 버전이 올해 현지 방송을 확정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대중문화교류에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미생'의 중국 리메이크 버전은 '평범적영요(평범한 영광)'라는 제목으로 올해 상반기 방송될 예정이다. 방송사인 절강위성TV는 3월 29일 항저우의 한 호텔에서 올해 봄 방송할 드라마 14편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평범적영요'를 포함했다. 특히 여주인공을 맡은 배우 차오신이 이날 직접 무대에 올라 드라마를 적극 홍보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 드라마의 중국 리메이크가 처음은 아니지만 '미생'이 관심을 모으는 데는 시의적절한 이유가 있다.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교류는 2016년 촉발한 '한한령'의 여파로 여전히 가파르게 있기 때문이다. '미생' 역시 리메이크가 확정된 직후 한한령이 시작되면서 타격을 입었고, 방송하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절강위성TV 측은 '미생'이 2014년 tvN에서 방송한 직후 리메이크를 가장 먼저

제안했고 2016년 1월 판권을 정식 구매했다. 당시 계획대로라면 '미생'은 그해 하반기에 제작을 완료해 이듬해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6년 7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불허되면서 '미생'의 리메이크 제작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6월에서야 시작됐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제작될 수 있던 배경에는 '미생'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빼놓을 수 없다. '미생'은 국내 방영 당시 중국의 동영상사이트 요우쿠를 통해 정식 방송돼 큰 인기를 얻었다. 중국 대표 리뷰 문화사이트인 도우반에서도 높은 평점을 기록하면서 현지 시청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도 이끌어냈다. 자극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소재와 탄탄한 스토리, 출연자들의 연기력이 현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평범적영요'라는 제목에서 옛보이들 '미생'과 마찬가지로 중국 버전 역시 직장인이란 누구나 겪을 법한 평범하고 보편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힘입어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방송가의 기대가 상당하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12일부터 단독콘서트·새 앨범 임박

5인조 아이돌 그룹 뉴이스트가 '제2막'을 시작한다.

이들은 2012년 데뷔 후 이어진 긴 침체기 등을 모두 끝내고 다시 출발선에 섰다. 워너원 멤버로 활동한 황민현이 최근 프로젝트 활동을 마치고 그룹에 복귀해 3년 만에 '완전체'로 활동한다. 특히 올해는 데뷔 7년이라는 특별한 해를 맞이해 "다시 달라져"라는 의미로 일찌감치 소속사와 재계약까지 마치고 화려한 활동 포문을 연다.

이들은 2017년 방송한 앨범 오디션프로젝트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 후 재조명되면서 팬덤을 확보했다. 이제 그룹 활동이 본격 궤도에 오른 만큼 새로운 영역 확장에 나선다는 각오다.

출발은 대규모 콘서트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 '세로'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2013년 '쇼 타임! 뉴이스트 타임 인 서울' 이후 6년 만의 단독공연이다. 또 1회 1만석 규모의 체조경기장에서 공연을 펼치는 것은 데뷔 후 처음이다

콘서트 일정과 비슷한 시기에 새 앨범도



뉴이스트

내놓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데뷔 7주년을 기념해 디지털 싱글 '노래 제목'을 발표한데 이어 조만간 신보를 선보인다. 다섯 멤버가 뭉쳐 새 앨범을 발표하는 것은 2016년 8월 발매한 다섯 번째 미니음반 '캔버스' 이후 처음이다.

3일 오후 황민현의 솔로곡 '유니버스'를 시작으로, 멤버들의 솔로곡을 선공개 형식으로 선보인 뒤 정식 앨범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데뷔 후 처음으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 5월 방송예정인 한창 준비 중인 앨범 리얼리티 프로그램(제목 미정)에서 평범한 일상과 멤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연예뉴스 HOT 3

김기덕, PD수첩·여배우 A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김기덕 감독

김기덕 감독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 A와 이란 내용을 'PD수첩'을 통해 보도한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기덕 감독은 3월 8일 소송을 내고 A와 MBC가 허위 사실을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김기덕 감독은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도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민우회는 유바리국재판타스팅영화제가 김 감독의 작품을 개막작으로 선정하자,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무한도전 멤버들, 종영 1년 만에 만났다



김태호 PD

MBC '무한도전'의 김태호 PD와 유재석 박명수 등 출연자들이 3월 31일 뭉쳤다. 지난해 3월 31일 종영하고 정확히 1년 만이다. 이날 MBC 관계자는 "이들이 바쁜 시간 짬을 내 서울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프로그램 종영 1주년을 기념해 시청자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김 PD는 2월 MBC 방송광고 연간 선포회 관련 설명회에서 새로 맡을 신규 프로그램과 '무한도전' 1주년 이벤트에 대한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방송 사고 SBS드라마 '빅이슈', 3·4일 결방



한예슬

연기자 한예슬과 주진모 주연의 SBS 수목 드라마 '빅이슈'가 3일과 4일 결방한다. '빅이슈' 제작진은 3월 21일 방송에서 미완성 컴퓨터그래픽 장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사고를 낸 바 있다. 이에 제작진은 완성도와 재정비를 위해 한 주 방송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틀간은 지금까지 방송한 내용이 하이лай트로 편집돼 나간다. 3일에는 1~8회, 4일에는 9~16회가 각각 60분 분량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